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노봉수

신혼 여행.....

지난 해 여름 한 통의 편지를 받은 나는 마음이 두근두근하였다. 조직적합성항원(HLA)형 1차 검사를 한 결과 나와 95%일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연락이었다. 그리고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내와 함께 상의를 하였다. '백혈병에 걸려 도움을 청하는 부모의 심정이 되어서 생각해 보자' '그들은 얼마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하니 주저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몸져누워 계신 아버님과 일년 내내 옆에서 간호하시는 어머니는 잘 생각하여 결정하여라 하시며 네 몸도 성한 몸이 아니고 나이도 많고 직장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평소 허리가 안 좋아서 재활의학과에서 3개월 치료한 적이 있었던 나로서는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였지만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이제까지 기증한 사람 중에서 가장 고령자에 속한다고 하니 혹시나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그것이야말로 도전해 보고픈 일이었다. 평소 혈액원에서 한 달에 한번 꼴로 혈소판을 기증하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좋은 피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별 걱정은 되지를 않았다. 그러나 조직적합성항원이 100%일치한다는 사실과 수술 일정이 정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몸 관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감기 예방주사도 맞고, 좋아하는 술도 끊고, 몸을 피곤하게 하는 일은 가능한 줄여나갔다. 임신한 엄마가 아이를 위해 애를 쓰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의 건강문제로 수술이 지연된다든가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몸보신하라고 고기를 사주는 통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수술과 입원 기간동안 아내가 같이 곁에 있어 주었는데 결혼 후 이렇게 긴 시간을 아내와 함께 한 적이 없었다. 3박4일 동안을 함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자고 하던 생활은 마치 신혼 여행이라든가 온 것 같았다. 바쁘게 생활하여 왔던 나에게서는 커다란 선물이었다.

수술기간이 학기중이라 입원하기 전 미리 가상강의로 수업내용을 올려놓았고 시험을 보고 풀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려를 한 덕



에 한 과목만 수업을 하지 못하였다. 1주일만에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데 커다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되었던 모양이다. 어떻게 나이도 많은 교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부족함을 느끼기라도 한 듯 많은 전자메일이 왔다. 그 중 이제 현혈하는 것을 시작하겠다는 학생,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학생 등의 글을 보면서 강단에서 전문적인 지식만을 가르치면서 사람다운 교육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한번 내가 몸소 모범을 보여 줄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연말 성덕 바우만의 결혼식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서한국씨가 성덕 바우만 한 사람만을 살린 것이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사랑의

모습과 더불어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한 커다란 사랑의 첫발자국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해 조혈모세포를 기증받고 건강을 찾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여러분은 살아 있는 천사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천사답게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할텐데 하며 또 다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또 다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나타나다면 나는 또 한번 신혼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지난 해 11월 골수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노봉수님은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과학부 교수로 현재 서울여대 교무처장으로 재직중입니다.-

기증자 이야기

여수대학교 수산생명과학부 해조재배학, 유전육종학 연구실 / 서 태 호

두번의 사랑 나눔에 당첨된 사나이

2002년 〇월 한동안 잊고 지내던 골수은행협회의 코디네이터 장형인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실 무척 반가웠다. 내가 그분과 골수은행협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년 전의 일이었다.

난 1999년에 우연히 전남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하다가 골수기증희망자 신청서를 접하게 됐고, 수산생물의 유전과 육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과 골수기증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난 기증자 신청서에 등록했다. 하지만 난 여수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여수에 헌혈의 집이 있긴 했지만 골수기증신청자 접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그곳 전남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골수기증 신청을 했다. 사실 난 골수기증신청을 하면서 혹시 이렇게 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골수기증 한번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렇게 기증신청을 한 것이 쓸모 없지 않을까 걱정까지 했었다.

1년 후, 2000년 〇월 연구실에서 점심을 먹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어떤 의지가 있어 보였다. 그분은 본인이 골수은행협회 코디네이터임을 소개하고

내가 지난해에 골수기증 신청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이제 내게도 기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그리고 그분은 내 골수기증의사 확인과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자 여수로 오시겠다고 했다. 내 차안에서 혈액샘플을 채취하고, 그 분으로부터 골수기증을 하기까지의 일정을 들을 수 있었다. 상당히 일정이 길었다. 1차 자가 헌혈과 건강검진, 2차 자가 헌혈 등이 서울 모병원에서 이루어지고, 2000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난 골수기증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고통이나 불편함은 없었다. 수술은 전신 마취 후 이루어져서 고통은 전혀 느낄 수 없었고, 병원에서 퇴원후 내가 자주 즐기는 볼링도 1주일만에 치러 갈 수 있을 정도였다.

1년 후, 2001년 다시 한번 골수은행협회 코디네이터 장형인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의 내용은 여수지역에 골수기증자분이 있으셔서 길 안내와 그분에게 내 경험담을 얘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난 기꺼이 응했고, 그분도 기꺼이 골수기증에 동의하셨다. 아마 내가 일생을 살면서 그때가 가장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다시 1년 후, 2002년 내게 두 번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난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기회를 저버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2002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는 두 번째 당첨을 확인했다. 그때는 아주 걱정이 많았다. 내가 약간 살이 찼던 편인데 혹시 마취가 잘못 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야 골수기증이 가능하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이다. 그때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 혹시 희망에 부풀어 있는 수혜자 가족들이 내가 기증을 못하게 되면 얼마나 실망이 클까 하고 말이다.

지금 난 빨리 4월과 6월이 오기를 기다린다. 4월에는 우리 골수기증자 모임이 있고, 6월이 되면 난 다시 헌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로또복권이 큰 유행을 했다. 요즘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로또복권 뿐만 아니라 다른 복권에도 당첨되기를

시도를 한다. 그 복권들의 1등 확률은 몇백만분의 1이다. 그래서 난 복권을 이제까지 한번도 사본 적이 없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복권이 몇백만분의 1인 확률이라도 거기에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1등 당첨을 할 수 없다고... 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내 경우를 볼 때 복권에 운이 없는 나도 골수기증에 2번이나 당첨됐다.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들이 골수기증에 참여한다면 나보다도 더 많은 골수기증의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난 앞으로도 나에게 골수기증 하겠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줄 것이다. 그럼 그런 확률로 당첨된 기회를 당신은 버리겠냐고... 그건 사랑이나 헌신이라고 하기보다 서로 같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거라고. 끝으로 사랑을 함께 나눈 골수기증자 분들과 수혜자 및 그 가족분들 그리고 골수은행협회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질병에 시달리는 많은 환자분들이 빨리 완쾌되길 기원하며.... 멀리 바닷가에서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우 상 진

작은 사랑의 실천과 너무도 큰 기쁨...^M

장마가 시작 될 무렵,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교통 사고로 병원에 입원 하셨다”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서둘러 병원에 갔을 때 수술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고, 늦은 저녁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었고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뜻밖의 한국골수은행협회로부터 우편물을 받아 보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와 골수가 일치하는 겨우 8살의 어린 환자가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골수기증의 절차와 방법을 적은 편지와 ‘비혈연 골수이식에 관한 뉴스레터’라는 제목의 작은 책자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뉴스레터라는 소책자 안의 골수기증자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도 진솔하게 가슴에 와 닿았고, 이런 저런 생각으로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날 헌혈을 통하여 작은 사랑이지만 실천하자는 생각으로 기회가 되면 자주 헌혈을 해 오던 중,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골수기증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편지를 받게 되었고, 다음날 바로 적십자 혈액원을 찾아 서류를 작성하고, 검사용 혈액을 채취하며 나에게도 기회가 오면 꼭 동참하

리라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기회가 지금 내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회가 찾아오니 처음에는 정말 망설여지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겨우 8살, 8살의 어린 환자라니...

정말 8살 어린 환자라는 말이 계속 머리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몸쓸 병마와 씨름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어린 환자의 모습들이 머리 속에 그려지니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정말 이런 저런 생각들이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도 머리 속에는 온통 골수기증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약 이틀을 골수기증에 대한 생각으로 골몰하다가 나의 정말 작은 희생이 어린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나 큰 보람이자 너무도 큰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주님의 사 람으로 이런 소중한 기회를 놓쳐 버린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자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이 나의 작은 사랑을 실천하자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다음날 골수협회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골수 기증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도 평안해 지고 하루라도 빨리 기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기증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기증하기까지 건강관리를 잘 해서 골수를 잘 기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 통화 이후, 양성희 담당 코디네이터님이 제가 살고 있는 수원에서 모든 기증에 관련된 혈액 검사와 건강검진에서 마지막 기증에 이르기까지 앞서서 처리해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많이 힘들텐데도 힘든 내색 전혀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코디네이터님이 정말 아름답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을 앞둔 늦가을 기증 날짜가 잡히고, 2박3일 동안 생애 두 번째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당일에는 긴장한 탓인지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조금 아팠는데, 곧 괜찮아졌습니다. 한국골수는 행협회에서 여러 가지로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셔서 병원에서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입원 둘째 날 아침 일찍 전신 마취를 한 가운데 짧은 수술이 이어졌고, 마취에서



깨어나니 처음 입원했던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큰 통증은 없었는데, 움직일 때마다 약간 빠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셋째 날 아침이 되니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쾌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회사에서 이틀 동안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쉬고 나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골수 기증을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시고, 배려해주신 골수 협회와 코디네이터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도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정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골수기증은 내 평생 지울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 중에 하나로 평생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골수은행협회와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이러한 골수 기증의 기회가 또 찾아온다면 망설임 없이 선뜻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골수를 받은 어린이가 건강을 회복하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꿈을 펼치며 아름답게 성장하길 기대하며, 또한 너무도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골수은행협회와 관계자 여러분과 기증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이혜정

두려움의 크기보다 더 큰 보람

작년 겨울,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이동식 헌혈 차, 당연히 합격하리라 믿었던 필기시험에서 보기 좋게 낙방하면서 씩씩한 심정을 승화시키려 평소에 시간에 쫓겨 하지 못했던 헌혈을 하면서입니다. 건강 체크를 해주시던 간호사 님이 골수기증에 관한 설명을 하시며 “이거 맞을 확률이 아주 희소한데... 나도 3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맞는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의미 있는 일이니까 혈액 샘플 몇 개 채취하고 골수기증 동의서 작성하는 게 어때요?” 하셨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낙방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는 좀 더 기분이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거의 고민도 하지 않고 간호사 님의 말씀대로 따랐다. 순간의 작은 결정이 나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의미를 주리라고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나서 이때의 일이 기억에서조차 지워져가고 있을 즈음에 한국골수은행협회 우편물이 집으로 와 있었다. 생소한 우편물이라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급하게 뜯고는 빠르게 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머리 속에 ‘우르르 쿵쿵!’ 벉락이 치는 것 같은 충격이 일었다. 나의 유전자와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9

세 남아의 유전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니 골수기증을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다른 나라에서의 꿈 속 같은 일처럼 느껴질 뿐 현실로 느껴지질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장애인복지관에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써,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의 가난과 고통을 알리고 후원을 종용해야 하는 사람으로써, 무섭고 당황스럽다는 이유로 골수기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정말 괜찮은 건가... 많이 아플까...” 이런 생각들은 밤새 계속되어 하얀 밤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은 이렇게 체험 수기를 쓰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

골수기증 결정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일정이 진행되었다. 직장으로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2차 유전자검사를 위한 혈액 샘플을 뽑았고, 1개월 후에 2차 검사 또한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들을 수 있었고, 수술 날짜를 정하는 것은 기증을 받을 아동의 사정으로 늦춰져서 찬바람이 날 때 즈음에 수술을 하였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환자복을 입어 보는 것도, 병원 밥을 먹어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수술은 오전 첫 타임에 이루



어졌고, 내가 잠에서 깬 때는 어둑해질 때였다. 아픔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으나 식구들 몰래하는 일이어서 1인 병실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외로움을 느껴야 했다... 그래도 나와 절친한 두 명의 친구얼굴을 볼 수 있어 위안이 되었고, 코디네이터의 극진한 돌봄이 있어 따뜻했다^^

수술 후 1주는 다소 걷는 데 빠근함과 어지러움이 느껴졌으나, 2주째부터는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유전적으로 건강함을 타고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

병원에서의 3일은 내 인생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최고의 날이었다. 순

식간에 지나가는 세월들 속에 이런 뜻 깊은 경험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일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처음처럼 주저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골수기증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두려움의 크기 보다 훨씬 더 큰 보람과 추억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다. 나의 피를 나누고 가끔씩 얼굴 모를 나를 떠올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을 어린 소년이 있다는 건 세상이 힘겹다고 느껴질 때, 나에게 살아갈 의미를 준다^^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한 승 규

작은 희생으로 큰 생명을...



그렇게 시선 받을 일도 아니지만 저의 골수기증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후에 일어난 일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골수기증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22살의 대학생입니다. 골수기증의 동기는 저희 학교(명지대)의 채플시간을 통해서 골수기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플이 끝나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골수기증을 위한 설명을 듣고 선배의 권유와 함께 골수기증 등록을 마쳤습니다. 처음의 마음은 유전자일치 확률이 너

무나 적기 때문에 그냥 시도라도 해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인 2002년 5월에 골수은행협회로부터 등기 하나가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직감했고 열어보는 순간 유전자 일치가 분명함을 알게 됐고 저의 골수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살짜리 어린 여자아이에게 골수를 기증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뿌듯했고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아프다는 소문 때문인지 두려웠습니다. 더욱이 2003년도 학군후보생 기초군사훈련이 12월달에 있는 터라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통보를 받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완고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다 같듯이 자기자식의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사명과 나의 양심이 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부모님도 저의 의견에 두손두발 들고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골수기증에 대한 안 좋은 여론 때문에 많은 주위사람들과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반대했습니다.

건강검진과 자가수혈을 위한 헌혈을 마치고 마침내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흥분되고 걱정되고 그 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전신마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깨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술실에 들어가 마취되고 그 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후 호흡호수에 의한 목의 통증이 조금 있었고, 수술부위의 지혈을 위해서 7시간 동안 누워 있었고, 그 후에는 앉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별로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동안 편히 쉬고 다음날에 저는 걸어서 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달 정도는 뛰지 말고 격렬한 운동을 삼가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그 후에는 제게 걱정이 되었던 동계군사훈련도 무사히 아무런 문제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골수기증 후 건강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골수기증 후 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저를 민망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대단하다”고.. 꼭 영웅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속에 저도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더욱더 골수기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정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골수기증은 너무나 아픈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라 헌혈과 같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 말이죠.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세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조금만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 목욕을 하다가 저의 둔부 위쪽에 생긴 조그만 두 개의 수술자국을 보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작은 두 개의 구멍으로 한 생명을 살렸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작은 희생을 통해서 큰 생명을 살리는 골수기증운동에 함께 동참합시다.